

## 동서독 정상회담 사례와 시사점

호광석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 머리말

**지**난 4월 10일 남북한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 후 남북한간에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 바 있으나 성사 며칠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의 급逝로 무산된 일이 있다. 그 후 남북한간에는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어 오히려 대북 실망감과 불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는 모르나 분단 55 년만에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결코 적지 않다. 냉전 구

조 청산이니, 경제 협력 활성화니,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를 바라기보다는 비록 한, 두 가지라도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평화 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회담의 성과를 바라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치고 성급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기대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만남과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은 이미 당사자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과 통일전 동서독의 상황은 다르고, 통일 방식에 있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sup>1)</sup> 그러나 평화 통일의 필수 요소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동

1) 기본적으로 동서독간에는 당사자들간의 전쟁의 경험이 없고, 분단 이후에도 매우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해왔다는 점은 남북한과 뚜렷이 다른 점이다. 또한 독일의 통일 방식인 흡수 통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도 '흡수 통일 배제'를 대북 3원칙 속에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표〉 동서독 정상회담 일지<sup>2)</sup>

회담	접촉 대표		일시	장소	논의내용	
	동독	서독				
공식 회담	1	슈토프(Willi Stoph) 수상	브란트(Willy Brandt) 수상	1970. 3.19	에어푸르트(동독)	양국관계 정상화
	2	"	"	1970. 5.21	카셀(서독)	"
	3	호네커(Erich Honecker) 국가평의회위원장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	1981.12.11-13	동베를린(동독)	경제 협력 등 양국 관계 전반
	4	"	콜(Helmut Kohl) 수상	1987. 9. 7-11	본(서독)	동독인들의 서독 자유 여행, 환경·과학 기술 분야 교류
	5	모드로(Hans Modrow) 수상	"	1989.12.19-20	드레스덴(동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동독 개혁
	6	"	"	1990. 2.13	본(서독)	대동독 경제 지원 및 통일 방안
비공식 접촉	1	호네커(Erich Honecker) 국가평의회위원장	카스텐스(Karl Carstens) 대통령	1982.11.14	모스크바(소련)	브레즈네프 장례식 참석
	2	"	콜(Helmut Kohl) 수상	1984. 2.14	모스크바(소련)	안드로포프 장례식 참석
	3	"	"	1985. 3.12	모스크바(소련)	체르넨코 장례식 참석

서독의 사례는 남북한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본 고에서는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를 개관해보고, 그 시사점을 남북한이 교훈 삼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

### 동서독 정상회담의 개관

동서독은 분단 25 년만인 1970년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완성할 때

까지 20 년 동안 공식회담 여섯 차례, 비공식 접촉 세 차례 등 모두 아홉 차례의 정상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독은 1970년 3월 19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통일이 될 때까지 20 년간을 꾸준히 정상급 회담을 지속시켜왔다. 특히 통일이 되기 전 10 년 동안에는 무려 7 번의 정상급 회담과 접촉이 있었다.

이처럼 비록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회담은 물론이고 제3국 국가 지도자 장례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접

2) 통일원(1993. 12),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39.

축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적어도 양독간에 대화와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84년 2월 안드로포프 장례식에서는 서독의 콜 수상이 동독의 호네커 국가평의회회장의 서독 방문을 초청할 만큼 양독 정상들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계속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독 정상들간의 회담이 항상 만족할 만한 합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1984년 2월 콜 수상의 초청을 호네커는 수락했으나, 불과 7 개월 만인 9월 4일 서독 방문 취소를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3 년이 지난 1987년 9월에야 비로소 호네커의 서독 방문이 실현되기도 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동서독간의 정상회담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내독 교역이나 체신 교류, 인적·물적 통행을 비롯한 교통 문제, 각종 문화·교육·스포츠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된 바탕 위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한 이유에서 동서독간의 관계는 '先교류 後정상회담

'이라는 공식을 지적하기도 한다.<sup>5)</sup>

그렇다면, 과연 동서독의 최고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어떠한 문제들을 논의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가를 공식회담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주요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 ○ 제1차 정상회담 : 양독 관계에 관한 입장 차이 확인

동서독간의 첫번째 정상회담은 1969년 10월 28일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취임 시정연설을 통해 양독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의한 이래, 그해 12월 동독측의 구체적인 회담 개최 제의에 의해 브란트 서독 수상과 슈토프 동독 수상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 3월 19일 열린 제1차 정상회담은 실무 접촉 과정에서 회담 의제에 관해서는 이미 동서독간 관계 수립 문제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쟁점 사항은 회담 장소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서독은 브란트 수상이 서베를린을 거쳐 동베를린을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동독은 이에 대해 반대하였는데,

3) 통일원(1992. 8), 「독일 통일 실태 자료집 -비경제 분야」, p. 50.

4) 동서독 교류 협력의 실태에 관해서는 통일원(1993. 12), 앞의 자료와 정용길(1993),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의 분열과 통일", 노명식 외 공저, 「역사상의 분열과 재통일」하, 일조각, pp. 219~271 참조.

5) 정용길(1990), 「통일환경론」, 고려원, pp. 329~330.

양측의 입장은 극히 대립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은 제3의 장소인 에어푸르트를 제의했고, 마침내 서독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동독의 에어푸르트에서 역사적인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이러한 제1차 동서독 정상회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양독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는 것이었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완전한 국제법적 승인을 받아 독립된 두 개의 주권 국가로서 동서독이 동등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서독은 양독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려고 했는데, 비록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지만, 이 두 국가는 서로 외국으로서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7)</sup> 이처럼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동서독은 별다른 합의없이 정상회담을 끝내고 말았다.

○ 제2차 정상회담 : 실리적인 대화 추진의 계기

쌍방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 에어

푸르트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끝나자 동서독은 제1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제2차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브란트 서독 수상이 제2차 정상회담의 일자와 장소를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카셀로 제의하였고, 동독의 슈토프 수상이 수락함으로써 제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2 개월만에 두번째 동서독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민족의 단일성과 특수한 내적 관계를 역설하면서 동서독이 단순한 병존 관계가 아닌 공존 공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조약 요건으로서 '카셀 20 개 항목'을 제의하였다.<sup>8)</sup> 그러나 동독의 슈토프 수상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조성된 2 개의 민족성을 강조하고<sup>9)</sup>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로서의 관계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동독을 차별하는 서독 연방법의 국제법상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서독측을 비난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 결과 제2차 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달리 제3차 회담에 관한 합의도 보지 못한 채 끝을 내야 했다.

6) 통일원(1993.12), 앞의 자료, pp. 39~40.

7) 민족통일연구원(1991.9), 「동서독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관계 개선 방안 - 정상회담과 기본조약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pp. 19~21과 서병철(1988),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 지식산업사, p. 48.

8) 주요 내용으로는 무력 행사 포기, 상호 독립성 인정, 내정 불간섭, 군비 축소 및 통제, 상호 여행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통·우편·통신·학술·교육·문화 및 공해 방지 분야에서의 협력, 무역협정 준수, 상주 대표 파견 및 유엔 동시 가입 등 광범위한 당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민족통일연구원(1991. 9), 앞의 책, pp. 24~25).

9) 동독의 주장은 독일에는 사회주의적 국가인 동독 인민과 자본주의적 국가인 서독 주민간에 근본적인 사회적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독을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서독을 '자본주의적 민족'으로 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동서독이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게 되자 이제는 보다 더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특히 브란트 수상은 “비록 입장 차이는 있더라도 대화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며 동서독 정부간 회담의 지속을 제의하였고, 에곤 바르(Egon Bahr) 당시 서독 수상실 국무차관은 “이제는 전문가들이 조용히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합의문을 준비해야만 할 때”라고 제2차 정상회담을 평가했다.<sup>10)</sup>

실제로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동서독 간에는 일련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제2차 정상회담이 끝난 지 6 개월만인 1970년 11월 27일부터 동서독은 국무차관간에 양독 관계에 관한 교섭을 개시하였고, 1971년 9월 30일에는 베를린 통과협정, 1972년 5월 2일에는 통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 8월부터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어 11월 2일 본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12월 21일 동베를린에서 양독 국무차관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다음해인 1973년 6월 21일에는 공식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발효시켰다. 뿐만 아니라 1973년 9월 18일에는 동서독의 유엔 동시 가입이 실현되

고, 이듬해인 1974년 3월에는 동서독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의정서를 교환하였다. 6월 20일부터는 정식으로 동서독의 상주대표부가 교환 설치되는 한편, 5년 후인 1979년 10월 31일에는 자유통행협정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11)</sup>

따라서 에어푸르트 정상회담과 이어 카셀 정상회담 등 두 차례의 동서독 정상회담은 즉각적인 회담의 성과를 거두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 후 통일이 되기까지 동서독 관계를 규정하고 교류 협력의 지침서가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 제3차 정상회담 : 양독 관계의 현실 인정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열린 1, 2차 회담과는 달리 제3차 정상회담은 동서 양 진영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인 1981년 12월 동독의 동베를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동베를린 근교의 베어벨린에서 열리게 되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각기 서독과 동독에 중거리

10) 민족통일연구원(1991. 9), 앞의 책, pp. 26~27.

11) 각 협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원(1992. 7), 「동서독 관계 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동서독은 서로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느꼈고, 이는 상호간의 긴장 완화 유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과거와는 달리 독일 민족 의식이 강하게 부각되었고, 3 일간에 걸쳐 친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독간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었다. 실제로 슈미트 서독 수상은 기본조약의 성의 있는 이행,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 의결 사항 준수, 소련 핵무기의 위협 및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한 양독의 의무 등을 강조하였다.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위원장 역시 긴장 완화 및 유럽 평화 유지 노력의 필요성과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핵군비 강화를 비난하였을 뿐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찾아볼 수 없었다.<sup>12)</sup>

이처럼 제3차 정상회담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체결된 조약과 협정을 바탕으로 발전되어온 동서독 관계를 인정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아울러 양독의 관계 장관들이 실무회담을 갖고 각종 교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동서독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 제4차 정상회담 : 사실상 통일에 준하는 단계 진입

제3차 정상회담 이후 동서독간에는 공식적인 정상회담보다는 비공식적 접촉을 주로 갖게 되었다. 특히 제3차 정상회담 당시 서독의 슈미트 수상이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위원장을 초청한 바 있으나, 소련의 방해로 세 차례나 취소되었고, 1987년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양독 관계가 결코 악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사이 동독에 대한 서독의 차관이 제공되고, 1985년 7월에는 경제협정, 8월에는 고속도로 보수협정, 그리고 1987년 5월에는 문화협정이 동서독간에 체결되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서 1987년 9월 서독의 본에서 열리게 된 제4차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독의 국가 원수 겸 실권자가 서독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더욱이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위원장의 서독 방문을 맞아 서독은 양독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는 입장에서 공식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실제로는 동독의 국가 연주, 국기 게양 및 의장대 사열 등 국가 원수로서 완전한 예우를 갖추었으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기를 바라던 동독의 체면을 살려주는 현명

12) 서병철(1993), 앞의 책, pp. 50~51.

13) 통일원(1992. 8), 앞의 자료, p. 50.

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이 동서독이 모두 한발씩 양보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은 회담의 성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콜 서독 수상과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회장은 과학·기술협력협정, 환경보호협정, 방사능 보호 및 원자로 안전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서독은 전문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무리짓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로써 동서독은 사실상 통일에 준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sup>14)</sup>

특히 제4차 정상회담에서 동서독은 실현 불가능한 문제는 서로 회피하고 그동안의 교류 협력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동서독은 서로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분단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합의함으로써, 평화 정착과 국민의 불편 제거를 위한 관계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것이다.

#### ○ 제5차 및 제6차 정상회담 : 통일의 실현

제4차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통일에 준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 동서독은 80년대말 동유럽에 불어닥친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서 통일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빠르게 내디딜 수 있었다. 특히 1989년 초부터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 체코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10월부터는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동독 주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11월 9일에는 베를린장벽이 개방되었다.

아울러 서독의 콜 수상은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의한 데 이어 12월 19일에는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모드로 동독 수상과 제5차 동서독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이른바 「조약공동체」 구성에 합의했다.<sup>15)</sup> 동서독 정상간의 합의대로 12월 22일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이 28년만에 개방됨으로써 독일의 통일은 기정 사실화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 1월 동독은 4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총선거를 3월 18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월 1일에는 모드로 수상이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한 4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월 13일에는 서독의 본을 방문하여 제6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통일통합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양독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동서독은 각 분야에서 통합 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해나가 급기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실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차와 제6차 정상회담은 독일의

14) 서병철(1993), 앞의 책, pp. 52~53.

15) 박성조·양성철(1991), 「독일 통일과 분단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p. 32.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동서독 최고 지도자들 간의 의견 조율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제 6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서독은 '화폐·경제·사회 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국가조약의 형태로 조인, 발효시킨 데 이어 제2차 동서독 국가조약이라고 하는 「통합조약」도 채택하여 각기 동서독 의회에서 가결 시킴으로써<sup>16)</sup> 통일을 조속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동서독 정상회담의 시사점

이와 같은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첫번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남북한에게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동서독은 1970년부터 1990년 통일을 완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상급회담을 전개해왔다. 물론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고,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지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은 이어졌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 당국자들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함으로써 결국 쌍방간의 입장 차이는 서서히 좁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화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서로가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처음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동서독이 확인한 것은 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이였다. 즉 동독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의 동등한 관계 수립을 희망했고, 서독은 독일의 대표성을 지니면서 특수 관계로 양독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입장 차이때문에 당시 동서독의 정상들은 아무런 성과없이 두 차례의 회담을 끝냈으나, 그 후 동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한편 여러 가지 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었다. 그렇다고 해서 쌍방의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만이 일반적으로 관철된 것은 없으며, 적어도 하나를 양보하고 다른 하나를 얻는 선에서 서로가 만족할 줄 아는 양보의 정신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실현 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뒤로 미루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동서독 정상회담의 사례들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대화 과정에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거론하여 논의의 초점을 흐리거나 서로가 민감해 하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비정치

16) 통일원(1992. 8), 앞의 자료, pp. 79~82.



적인 분야의 통합 문제가 우선 논의되었고, 정치 통합과 군사 통합 문제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되었다. 그만큼 실현 불가능하거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회피하는 현명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동서독은 조금 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다. 그때그때 회담의 성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며,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거나 무산되었다고 해서 교류 협력 관계를 전면 중단하지도 않았다. 또한 성급하게 통일을 운운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성실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와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정상회담 사례는 남북한에게 첫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하고 둘째, 서로가 양보하는 대화의 정신이 필요하며 셋째, 실현 불가능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뒤로 미루는 현명함이 요구되고 넷

째,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등의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동서독 정상회담의 시사점은 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치고 성급한 기대를 걸기보다는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기대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만남과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물론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황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독일 통일이 당사자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실현된 평화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서독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분단 55 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간의 현안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일단 접고, 최소한 남북한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만이라도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회담의 주체인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회담을 준비하는 관계자들도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기 보다는 다만 남북한 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자세로 성실히 회담에 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統**